

광주 학부모, 학교 청렴개선 '긍정적'

시교육청, 청렴인식지수 5.3% 조사

광주지역 초·중·고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청렴 인식이 매년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15년도 촌지 및 불법찬조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 학부모의 학교청렴인식지수(청렴 인식 변화)는 5.3%로 조사됐다.

학부모의 학교 청렴인식지수는 학교의 촌지 및 향응, 불법 찬조금 근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

지수가 낮을수록 청렴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청렴인식지수 5.3%는 응답자의 94.7%가 "학교에 촌지나 향응, 불법찬조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는 뜻이다.

이 지역 학교 청렴인식지수는 2011년 23.3%에서 2012년 15.1%, 2013년 12.4%, 지난해 10.1%에서 올해 5.3%로 낮아졌다.

학교급별 청렴인식지수는 초등학교가 3.6%, 중학교 5.9%, 고등학교가 8.3%로 초등학교 학부모의 청렴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1년간 촌지 및 향응 제공 경험이 있는가'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97.1%가 없다고 답했으며, 불법찬조금 제공 경험도 97.4%가 없다고 했다.

촌지 및 향응, 찬조금 경험이 있다는 답변도 2.9%와 2.6%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에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화통 이용해 무작위 표본추출(RDD방식)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6천863명에게 전화면접을 해 700명의 유효자료를 수집했으며 조사응답률은 10.2%, 학부모 조사표본의 최대허용오차는 95%신뢰수준에 ±3.6%p이다.

임기생기자

115 X 148 mm

광주 학부모들 “학교 청렴문화 나아졌다”

촌지·불법 찬조금 등 상당 부분 사라져... 청렴인식지수 좋아져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서 촌지나 향응, 불법 찬조금이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26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학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촌지·불법 찬조금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년 간 교사에게 촌지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97.1%가 "없다"고 답했다.

'불법 찬조금 제공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7.4%가 "없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들의 학교 청렴인식지수는 지난해 10.1%보다 4.5% 감소한 5.3%로 조사됐다. 학교 청렴인식지수는 촌지나 향응, 불법 찬조금 근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로, 지수가 낮을수록 청렴성이 높다는 의미다.

장회국 교육감 취임 후 처음 실시된 2011년에는 23.3%였으나, 이듬해에는 15.1%, 2013년 12.4%, 2014년 10.1%, 올해 5.3%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중·고 학부모의 청

렴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장 교육감의 3대 공약인 교육비리 척결이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관련 시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설문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에 박차할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문조사는 전화로 통한 무작위 표본추출(RDD방식)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초·중·고 학부모 6863명에게 전화 면접을 시도해 700명의 유효자료본 수집했다. 응답률은 10.2%, 조사표본은 95% 신뢰수준에 ±3.6%포인트다. 김지민 기자

165 X 87 mm

광주 학교 청렴인식 해마다 향상

시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10.1%→ 올해 5.3%

학부모들 인식 ‘긍정적’... 교육비리 척결정책에 탄력

광주지역 초·중·고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청렴 인식이 매년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부터 26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2015년도 촌지 및 불법찬조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부모들의 학교 청렴인식지수(청렴 인식 변화)가 작년 10.1%보다 4.5% 감소한 5.3%로 조사돼 촌지 및 불법찬조금에 대한 청렴인식지수가 크게 향상됐다.

학부모의 '학교 청렴인식지수'란 학교의 촌지 및 향응, 불법 찬조금 근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말하며 지수가 낮을수록 청렴성이 높아진다.

장회국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처음 실시된 2011년에는 23.3%로 다소 높았으나 꾸준히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한 결과 2012년에는 15.1%, 2013년 12.4%, 2014년 10.1%, 올해는 5.3%로 떨어졌다.

학교급별 학부모의 청렴인식지수는 초등학교가 3.6%, 중학교 5.9%, 고등학교

가 8.3%으로 초등학교 학부모의 청렴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촌지 및 향응 제공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97.1%가 '없음'으로, 불법찬조금 제공 경험에 대해선 97.4%가 '없음'으로 답했다.

그러나 촌지 및 향응, 찬조금 경험은 아직 2.9%와 2.6%가 잔재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장회국 교육감의 3대 핵심공약인 교육비리 척결정책이 학부모

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 시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로 장회국 교육감의 청렴시책 시연이 더욱 탄력을 받고 안정화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에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화로 통한 무작위 표본추출(RDD방식)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6863명에게 전화 면접을 실시해 700명의 유효자료본 수집했으며, 조사응답률은 10.2%, 학부모 조사표본의 최대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6%p이다.

/이민철 기자 ntr6051@naver.com

243 X 118 mm

광주 학부모들 “학교 청렴문화 개선”

97% “촌지·향응 제공無”…청렴인식 제고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서 촌지나 향응, 불법 찬조금이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26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학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촌지·불법 찬조금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년간 교사에게 촌지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97.1%가 "없다"고 답했다.

'불법 찬조금 제공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7.4%가 "없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들의 학교 청렴인식지수는 지난해 10.1%보다 4.5% 감소한 5.3%로 조사됐다.

학교 청렴인식지수는 촌지나 향응, 불법 찬조금 근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로, 지수가 낮을수록 청렴성이 높다는 의미다.

장휘국 교육감 취임 후 처음 실시된 2011년에는 23.3%였으나, 이듬해에는 15.1%, 2013년 12.4%, 2014년 10.1%, 올해 5.3%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6%, 중학교 5.9%, 고등학교가 8.3%으로 초등학교 학부모의 청렴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장 교육감의 3대 공약인 교육비리 척결이 학부모들로부터 효응을 얻고 관련 시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문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호기 기자

120 X 131 mm

광주 학부모들 “학교 청렴문화 나아졌다”

광주시교육청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서 촌지나 향응, 불법 찬조금이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26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학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촌지·불법 찬조금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

학부모 700명 대상 설문조사
“교사에 촌지 제공 無” 97%
학부모 학교 청렴인식 지수
2011년 23.3%→올해 5.3%

난 1년 간 교사에게 촌지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97.1%가 “없다”고 답했다.

‘불법 찬조금 제공 경험이 있는냐’는 질문에는 97.4%가 “없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들의 학교 청렴인식지수는 지난해 10.1%보다 4.5% 감소한 5.3%로 조사됐다.

학교 청렴인식지수는 촌지나 향응, 불법 찬조금 근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로, 지수가 낮을수록 청렴성이 높다는 의미다.

장휘국 교육감 취임 후 처음 실시된 2011년에는 23.3%였으나, 이듬해에는 15.1%, 2013년 12.4%, 2014년 10.1%, 올해 5.3%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6%, 중학교 5.9%, 고등학교가 8.3%로 초등학교 학부모의 청렴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장 교육감의 3대 공약인 교육비리 척결이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관련 시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설문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문조사는 전화를 통한 부작위 표본추출(RD)방식)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초·중·고 학부모 6863명에게 전화 면접을 시도해 700명의 유효자료를 수집했다.

응답률은 10.2%, 조사표본은 95% 신뢰수준에 ±3.6%포인트다.

조인호 기자

135 X 162 mm

광주시교육청, 촌지·불법찬조금 설문조사
학부모 '청렴 인식 변화' 매년 지속적 향상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15년도 촌지 및 불법찬조금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학부모들의 학교 청렴인식지수(청렴 인식 변화)가 작년 10.1%보다 4.5% 감소한 5.3%로 조사돼 학부모들의 촌지 및 불법찬조금에 대한 청렴인식지수가 크게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학교 청렴인식지수'란 학교의 촌지 및 향음, 불법 찬조금 근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말하고 지수가 낮을수록 청렴성이 높아지는

데, 장휘국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처음 실시된 2011년에는 23.3%로 다소 높았으나 꾸준히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한 결과 2012년에는 15.1%, 2013년 12.4%, 2014년 10.1%, 올해는 5.3%로 떨어졌다.

학교급별 학부모의 청렴인식 지수는 초등학교가 3.6%, 중학교 5.9%, 고등학교가 8.3%으로 초등학교 학부모의 청렴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내용을 보면, "지난 1년간 촌지 및 향음 제공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선 97.1%가 '없음'으로, 불법찬조금 제공 경험에 대

해선 97.4%가 '없음'으로 답하였다. 그러나 촌지 및 향음, 찬조금 경험은 아직 2.9%와 2.6%가 존재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장휘국 교육감의 3대 핵심공약인 교육비리 척결정책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 시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에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반영하는 등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선호 기자

144 X 86 mm

광주 학부모들 "학교 청렴문화 나아졌다"

광주시교육청, 촌지·불법 찬조금 설문조사 결과
다양한 의견 반영... 투명한 교직사회 실현 박차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서 촌지나 향음, 불법 찬조금이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26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학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촌지·불법 찬조금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년 간 교사에게 촌지나 향음 제공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97.1%가 "없다"고

답했다.

불법 찬조금 제공 경험이 있는가'는 질문에는 97.4%가 "없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들의 학교 청렴인식 지수는 지난해 10.1%보다 4.5% 감소한 5.3%로 조사됐다.

학교 청렴인식지수는 촌지나 향음, 불법 찬조금 근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로, 지수가 낮을수록 청렴성

이 높다는 의미다.

장휘국 교육감 취임 후 처음 실시된 2011년에는 23.3%였으나, 이듬해에는 15.1%, 2013년 12.4%, 2014년 10.1%, 올해 5.3%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6%, 중학교 5.9%, 고등학교가 8.3%으로 초등학교 학부모의 청렴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장 교

육감의 3대 공약인 교육비리 척결이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관련 시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설문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문조사는 전화통화 통한 무작위 표본추출(RDII방식)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초·중·고 학부모 6863명에게 전화면담을 시도해 700명의 유효 자료를 수집했다.

응답률은 10.2%, 조사표본은 95% 신뢰수준에 ±3.6%포인트다. /김덕문 기자

207 X 108 mm

“학교 청렴인식지수(청렴 인식 변화)” 크게 향상

광주시교육청, 학부모들의 “청렴 인식 변화” 매년 지속적 향상

23.3%(2011년) → 15.1%(2012년) →
12.4%(2013년) → 10.1%(2014년) → 5.3%(2015년)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15년도 총지 및 불법찬조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들의 학교 청렴인식지수(청렴 인식 변화)가 작년 10.1%보다 4.5% 감소한 5.3%로 조사돼 학부모들의 총지 및 불법찬조금에 대한 청렴인식지수가 크게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학교 청렴인식지수'란 학교의 총지 및 함음,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말하고 지수가 낮을수록 청렴성이 높아지는데, 장휘국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처음 실시된 2011년에는 23.3%로 다소 높았으나 꾸준히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한 결과 2012년에는

15.1%, 2013년 12.4%, 2014년 10.1% 올해는 5.3%로 떨어졌다.

학교급별 학부모의 청렴인식지수는 초등학교가 3.6%, 중학교 5.9%, 고등학교가 8.3%으로 초등학교 학부모의 청렴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내용을 보면, “지난 1년간 총지 및 함음 제공 경향이 있는가”에 대해선 97.1%가 '없음'으로, 불법찬조금 제공 경향에 대해선 97.4%가 '없음'으로 답하였다. 그러나 총지 및 함음, 찬조금 경향은 아직 2.9%와 2.6%가 잔재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장휘국 교육감의 3대 핵심공약인 교육비리 척결정책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응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 시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로 장휘국 교육감의 청렴시책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안정화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에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총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반영하는 등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화를 통한 무작위 표본추출(RDD방식)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6,863명에게 전화민첩을 실시하여 700명의 유효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응답률은 10.2%, 학부모 조사표본의 최대허용오차는 95%신뢰수준에 ±3.6%p이다.

/김덕만 기자

153 X 160 mm